

미니테스트 제 15 회

문 1.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2019행언가-22

① 조선 시대에는 농지에서 생산된 곡물의 일정량을 조세로 징수했는데, 건국 초에는 면적 단위 1결마다 거두도록 규정된 조세량이 일정했다. 하지만 이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많았다. 생산성이 좋은 농지를 가진 자는 정해진 액수만 내면 남은 양에 상관없이 그 모두를 가질 수 있었던 반면,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가진 자는 수확량이 적어 정해진 세액도 못 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는 모든 농지를 결이라는 동일한 크기의 면적으로 나누고 결마다 같은 액수의 조세를 받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다. 조선 왕조는 이런 문제점을 완화하고자 작황을 살핀 후 적당히 세액을 깎아주는 ‘답험손실법’이라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② 답험손실법에 따라 작황을 살펴보는 행위를 ‘답험’이라고 불렀다. 답험 실행 주체는 농지의 성격에 따라 달랐다. 국가에 조세를 내야 하는 땅은 그 농지가 위치한 곳의 지방관이 답험을 했다. 또 과전법의 적용을 받아 국가 대신 조세를 받는 사람이 지정된 땅의 경우에는 권리 수급자가 직접 답험을 했다. 그런데 답험 과정에서 지방관이 납세 의무자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제대로 답험을 하지 않는 문제가 자주 일어났다.

③ 세종은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고자 조세 개혁에 관한 초안을

만들었다. 이 초안에는 이전에 했던 방식대로 결당 세액을 고정하는 대신, 중앙 관청이 모든 토지의 작황을 일괄적으로 답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은 이 초안에 대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함경도 농민들은 1결마다 부과할 세액을 고정하는 데 반대하지만, 전라도 농민들은 환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라도 농민들은 생산성이 높은 농지가 많았기 때문에 찬성한 것이고, 함경도 농민들은 생산성이 낮은 농지가 많았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다.

이처럼 찬반이 엇갈리자 세종은 1결당 세액을 동일한 액수로 고정하되, 전국의 농지를 비옥도에 따라 6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결의 면적을 달리 하였다. 6등전과 1등전의 절대 면적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6등전 1결의 절대 면적이 1이라면 1등전 1결은 0.4였다. 한편 세종은 도 관찰사로 하여금 관할 도 안에 있는 모든 농지의 작황을 매년 조사한 후 그에 따라 결당 세액을 군현별로 조정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와 같이 세종 때 농지의 생산성과 연도별 작황을 감안해 세액과 결을 조정한 제도를 ‘공법’이라고 부른다.

① 1결의 절대 면적: 1등전 < 2등전

농지 결수 = $A > B$

1결당 세액은 동일하므로 조세 납부 총액은 $A > B$

② 연도별 작황에 따라 세액과 결이 달라질 수 있음

① 공법에 따르면 같은 군현 안에 있고 농지 절대 면적의 총합이 동일한 마을들 중 1등전만 있는 마을 주민들이 내는 조세의 총액이 2등전만 있는 마을의 조세 납부 총액보다 많아진다.

② 공법 시행 후에 같은 등급에 속한 농지들은 1결의 크기가 같아지므로 지역에 상관없이 매년 같은 액수의 조세를 냈다.

③ 절대 면적이 동일한 경우라도 공법 시행 후에는 1등전만 있는 마을이 2등전만 있는 마을보다 결의 수가 더 적어졌다. 많아졌다.

④ 과전법에 의해 조세를 국가 대신 받는 개인은 공법 시행으로 매년 그 땅의 작황을 조사해 중앙 관청에 보고해야 했다.

⑤ 세종의 초안대로라면 함경도 주민들이 내는 조세의 총액은 전라도 주민들이 내는 조세의 총액보다 많아진다. → X

문 2. 다음 글의 ‘나’의 암묵적 전제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2019행언가-30

나는 최근에 수집한 암석을 분석하였다. 암석의 겉껍질은 광물이 녹아서 엉겨 붙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운석이 대기를 통과할 때 가열되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암석은 유리를 포함하고 있었고 이 유리에는 약간의 기체가 들어있었다. 이 기체는 현재의 지구나 원시 지구의 대기과 비슷하지 않지만 바이킹 화성탐사선이 측정한 화성의 대기와는 흡사하였다. 특히 암석에서 발견된 산소는 지구의 암석에 있는 것과 동위원소 조성이 달랐다. 그러나 화성에서 기원한 다른 운석에서 나타나는 동위원소 조성과는 일치하였다.

놀랍게도 이 암석에서는 박테리아처럼 보이는 작은 세포 구조가 발견되었다. 그 크기는 100나노미터였고 모양은 동글거나 막대기 형태였다. 이 구조는 매우 정교하여 살아 있는 세포처럼 보였다. 추가 분석으로 이 암석에서 탄산염 광물을 발견하였고 이 탄산염 광물은 박테리아가 활동하는 곳에서 형성된 지구의 퇴적물과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탄산염 광물에서는 특이한 자철석 결정이 발견되었다. 지구에서 발견되는 A 종류의 박테리아는 자체적으로 합성한, 특이한 형태와 높은 순도를 지닌 자철석 결정의 긴 사슬을 이용해 방향을 감지한다. 이 자철석은 지층에 퇴적될 수 있다. 자성을 띤 화석은 지구상에 박테리아가 나타나기 시작한

20억 년 전의 암석에서도 발견된다. 내가 수집한 암석에서 발견된 자철석은 A 종류의 박테리아에 의해 생성되는 것과

같은 결정형과 높은 순도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나는 최근에 수집한 암석이 생명체가 화성에서 실재하였음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확신한다.

<보 기>

- ㄱ. 크기가 100나노미터 이하의 구조는 생명체로 볼 수 없다.
- ㄴ. 산소의 동위원소 조성은 행성마다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
- ㄷ. A 종류의 박테리아가 없었다면 특이한 결정형의 자철석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ㄷ. ($\sim A$ 박테리아 $\rightarrow \sim$ 특이·자철석)

\equiv (특이·자철석 $\rightarrow A$ 박테리아)

A 박테리아의 존재를 화성 생명체의 증거로 보았으므로 위와 같이 전제해야 가설이 성립함.

100나노미터의 작은 세포 구조를 생명체로 보았음.
지구와 화성의 산소 동위원소 조성이 다를 수 있음이며
최근 수집한 암석이 화성에서 온 것임을 추론함

문 3. 다음 글의 (가) ~ (다)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2019행언가-17

다음은 원인으로 추정되는 요인과 결과로 추정되는 질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연구 결과이다.

(가) 아스피린의 복용이 심장병 예방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심장병 환자와 심장병이 발병한 적이 없는 기타 환자 총 4,107명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심장병 환자 중 발병 전에 정기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해 온 사람의 비율은 0.9%였지만, 기타 환자 중 정기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해 온 사람의 비율은 4.9%였다. 환자 1만 542명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심장병 환자 중에서 3.5%만이 정기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해 왔다고 말한 반면, 기타 환자 중에서 그렇게 말한 사람은 7%였다.

(나) 임신 중 고지방식 섭취가 태어날 자식의 생식기에서 종양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결과는 임신한 암쥐 261마리 중 130마리의 암쥐에게는 고지방식을, 131마리의 암쥐에게는 저지방식을 제공한 연구를 통해 얻었다. 실험 결과, 고지방식을 섭취한 암쥐에게서 태어난 새끼 가운데 54%가 생식기에 종양이 생겼지만 저지방식을 섭취한 암쥐가 낳은 새끼 중에서 그러한 종양이 생긴 것은 21%였다.

(다) 사지 중 하나 이상의 절단 수술이 심장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부상을 당한 9,000명의 군인에 대한 진료 기록을 조사한 결과이다. 이들 중 4,000명은 사지 중 하나 이상의 절단 수술을 받은 사람이었고, 5,000명은 사지 절단 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중상을 입은 사람이었다. 이들에 대한 기록을 추적 조사한 결과, 사지 중 하나 이상의 절단 수술을 받은 사람이 심장병으로 사망한 비율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1.5배였다. 즉 사지 중 하나 이상의 절단 수술을 받은 사람 중 600명은 심장병으로 사망하였고, 그렇지 않은 사람 중 500명이 심장병으로 사망하였다.

—<보 기>—

- ㄱ. (가)와 (나)는 원인으로 추정되는 요인이 적용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나눈 후 그에 따라 결과로 추정되는 질병의 발생 비율을 비교하는 실험을 했다.
- ㄴ. (가)와 (다)에서는 원인으로 추정되는 요인이 적용된 개체를 중 결과로 추정되는 질병의 발생 비율을 알 수 있다.
- ㄷ. (나)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개체에게 원인으로 추정되는 요인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연구자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다)에서는 그렇지 않다.

→ 실험 가능 여부에 따름.

- | | |
|-----------|--------|
| ① ㄱ | ㉡ ㄷ |
| ③ ㄱ, ㄴ | ㉢ ㄴ, ㄷ |
| ⑤ ㄱ, ㄴ, ㄷ | |

추정 요인
추정 결과

→ (나)에 대해서는 옳지만, (가)에 대해서는 옳지 않음
(가)는 결과에 해당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

→ (나)에 대해서는 옳지만, (가)에 대해서는 반대로 사용함.
(가: 결과는 추정되는 질병이 발생한 개체들 중 원인으로 추정되는 요인이 적용된 개체의 비율을 알 수 있음)

문 4. 다음 <표>는 감염자와 비감염자로 구성된 유증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시스템 A ~ E의 정확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표>에 근거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0행자나 35

<표> 인공지능 시스템 A ~ E의 정확도
(단위: 명, %)

시스템	양성		음성		양성 검출률	음성 검출률	정확도
	감염자 a	비 감염자 b	감염자 c	비 감염자 d			
A	0	1	8	991	()	0.0	99.1
B	8	0	0	992	100	100.0	100.0
C	6	4	2	988	99.8	75.0	99.4
D	8	2	0	990	100.0	100	99.8
E	0	0	8	992	99.2	()	99.2

- ※ 1) 정확도(%) = $\frac{\text{'양성' 판정된 감염자} + \text{'음성' 판정된 비감염자}}{\text{유증상자}} \times 100$
- 2) '양성(음성)' 정답률(%) = $\frac{\text{'양성(음성)' 판정된 감염(비감염)자}}{\text{'양성(음성)' 판정된 유증상자}} \times 100$
- 3) '양성(음성)' 검출률(%) = $\frac{\text{'양성(음성)' 판정된 감염(비감염)자}}{\text{감염(비감염)자}} \times 100$

- <보 기> E
- ㄱ. 모든 유증상자를 '음성'으로 판정한 시스템의 정확도는 A보다 높다.
 - ㄴ. B, D는 '음성' 정답률과 '양성' 검출률 모두 100%이다.
 - ㄷ. B의 '양성' 정답률과 '음성' 정답률은 같다.
 - ㄹ. '양성' 검출률이 0%인 시스템의 '음성' 정답률은 100%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ㄱ, ㄴ, ㄷ

* 정확도 = $\frac{a+d}{1,000} \times 100 = \frac{a+d}{10} \dots \text{ㄱ}$

양성 정답률 = $\frac{a}{a+b} \times 100$ $\left\{ \begin{array}{l} a=0 \rightarrow 0\% \\ b=0 \rightarrow 100\% \dots \text{ㄷ} \end{array} \right.$

음성 정답률 = $\frac{d}{c+d} \times 100$ $\left\{ \begin{array}{l} c=0 \rightarrow 100\% \dots \text{ㄴ, ㄹ} \\ d=0 \rightarrow 0\% \end{array} \right.$

양성 검출률 = $\frac{a}{a+c} \times 100$ $\left\{ \begin{array}{l} a=0 \rightarrow 0\% \dots \text{ㄹ} \\ c=0 \rightarrow 100\% \dots \text{ㄴ} \end{array} \right.$

음성 검출률 = $\frac{d}{b+d} \times 100$ $\left\{ \begin{array}{l} b=0 \rightarrow 100\% \\ d=0 \rightarrow 0\% \end{array} \right.$

$E(99.2\%) > A(99.1\%)$

음성 감염자(c)=0

ㄷ. 서로 다른 개념으로 항상 이렇다고 볼 수 없음.

문 5. 다음 <표>는 2018년 ‘갑’국 도시 A ~ F의 폭염주의보 발령일수, 온열질환자 수, 무더위 쉼터 수 및 인구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19행자가-02

<표> 도시별 폭염주의보 발령일수, 온열질환자 수, 무더위 쉼터 수 및 인구수

구분 도시	폭염주의보 발령일수 (일)	온열 질환자 수 (명)	무더위 쉼터 수 (개)	인구수 (만 명)
A	90	55	92	100
B	30	18	90	53
C	50	34	120	89
D	49	25	100	70
E	75	52	110	80
F	24	10	85	25
전체	()	194	597	417

$\therefore \text{평균} = 50 + \frac{18}{6} = 50 + 3 = 53$

- <보 기>
- ㄱ. 무더위 쉼터가 100개 이상인 도시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도시는 C이다.
 - ㄴ. 인구수가 많은 도시일수록 온열질환자 수가 많다. → C vs E
 - ㄷ. 온열질환자 수가 가장 적은 도시와 인구수 대비 무더위 쉼터 수가 가장 많은 도시는 동일하다. → F
 - ㄹ. 폭염주의보 발령일수가 전체 도시의 폭염주의보 발령일수 평균보다 많은 도시는 2개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문 6. 다음 <표>는 ‘갑’국의 친환경 농작물 생산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0행자나-40

<표 1> 연도별 친환경 농작물 재배농가, 재배면적, 생산량
(단위: 천 호, 천 ha, 천 톤)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재배농가	53	135	195	221
재배면적	53	106	174	205
생산량	798	1,786	2,188	2,258

<표 2> 연도별 친환경 농작물 생산방법별 재배면적
(단위: 천 ha)

생산방법 \ 연도	2016	2017	2018	2019
유기농	9	11	13	17
무농약	14	37	42	69
저농약	30	58	119	119

※ 친환경 농작물 생산방법은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으로 구성됨.

<표 3> 2019년 친환경 농작물별 생산량의 생산방법별 구성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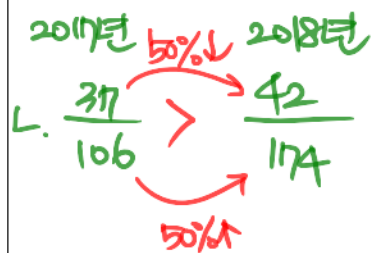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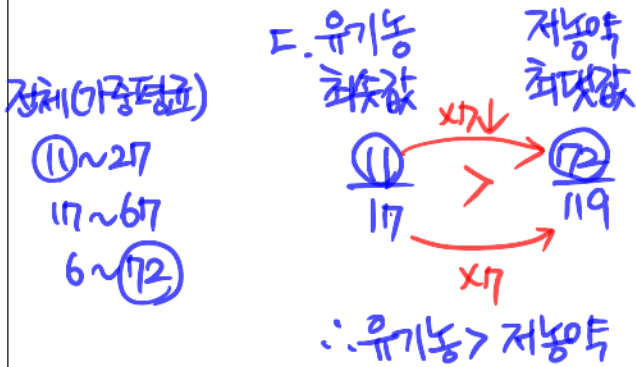
친환경 농작물 \ 생산방법	곡류 1	과실류 2	채소류 3
유기농	11	27	18
무농약	17	67	28
저농약	72	6	54
합계	100	100	100

※ 친환경 농작물은 곡류, 과실류, 채소류로 구성됨.

<보 기>

- ㄱ. 재배농가당 재배면적은 매년 감소한다. → 2018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자증대상)
- ㄴ. 친환경 농작물 재배면적 중 ‘무농약’의 비중은 매년 증가한다. → 2018년에는 전년 대비 감소(표증대상)
- ㄷ. 2019년 친환경 농작물 생산방법별 재배면적당 생산량은 ‘유기농’이 ‘저농약’보다 많다.
- ㄹ. 2019년 친환경 농작물별 생산량 비(곡류: 과실류: 채소류)가 1:2:3이라면, 친환경 농작물 생산방법 중 ‘저농약’의 생산량이 가장 많다. → 가장치 계산 뒤 합성한 값 비교

- ① ㄱ
- ② ㄹ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ㄷ, ㄹ



문 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2019행상가-22

제00조(사무의 관장)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00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면장·동장(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2.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국민

③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② 미성년자인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제00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① 민원인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민원인은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미성년자인 민원인이 제2항에 따라 이용 승인을 신청하려는

③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제00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부동산거래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④

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A동 주민 甲(30세)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동장을 방문하여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외국민 乙(26세)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였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바 있는 丙(17세)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④ 토지매매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 서울특별시 종로구 B동 주민 丁(25세)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을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청장 또는 B동장

의무사항 X

문 8.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 ~ 丁 가운데 근무계획이 승인될 수 있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2020칠상모-07

<유연근무제>

☐ 개념

- 주 40시간을 근무하되,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하여 1주일에 5일 이하로 근무하는 제도

☐ 복무관리

- 점심 및 저녁시간 운영
 - 근무 시작과 종료 시각에 관계없이 점심시간은 12:00 ~ 13:00, 저녁시간은 18:00 ~ 19:00의 각 1시간으로 하고 근무시간으로는 산정하지 않음
- 근무시간 제약
 - 근무일의 경우,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으로 하고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함
 - 하루 중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시간대는 06:00 ~ 24:00로 한정함

<상 황>

다음은 甲 ~ 丁이 제출한 근무계획을 정리한 것이며 위의 <유연근무제>에 부합하는 근무계획만 승인된다.

요일 직원	월	화	수	목	금
甲	08:00 9~ 18:00	08:00 9~ 18:00	09:00 3~ 13:00	08:00 9~ 18:00	08:00 9~ 18:00
乙	08:00 12~ 22:00	08:00 12~ 22:00	—	08:00 12~ 22:00	08:00 4~ 12:00
丙	08:00 12~ 24:00	08:00 12~ 24:00	—	08:00 12~ 22:00	—
丁	06:00 9~ 16:00	08:00 12~ 22:00	—	09:00 10~ 21:00	09:00 8~ 18:00

- ✓ ① 乙

③ 甲, 丁

⑤ 乙, 丁

② 甲, 丙

④ 乙, 丙

문 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지불한 연체료의 최솟값은?

2019행상가-37

A시립도서관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휴관일 없이 도서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 시민 1인당 총 10권까지 대출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4일이다.
- 대출 기간은 권당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총 대출 기간은 21일이 된다. 연장 신청은 기존 대출 기간 내에 해야 한다.
- 만화와 시로 분류되는 도서의 경우에는 대출 기간은 7일이며 연장 신청도 불가능하다.
- 대출한 도서를 대출 기간 내에 반납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해당 도서 반납을 연체한 것으로 본다.
- 연체료는 각 서적별로 ‘연체 일수×100원’만큼 부과되며, 최종 반납일도 연체 일수에 포함된다. 또한 대출일 기준으로 출간일이 6개월 이내인 신간의 연체료는 2배로 부과된다.

A시에 거주하는 甲은 아래와 같이 총 5권의 책을 대출하여 2018년 10월 30일에 모두 반납하였다. 甲은 이 중 2권의 대출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반납한 날에 연체료를 전부 지불하였다.

<甲의 도서 대출 목록>

도서명	분류	출간일	대출일
원○○	만화	2018. 1. 10.	2018. 10. 10.
입 속의 검은 △	시	2018. 9. 10.	2018. 10. 20.
□의 노래	소설	2017. 10. 30.	2018. 10. 5.
☆☆ 문화유산 답사기	수필	2018. 4. 15.	2018. 10. 10.
햄◇	희곡	2018. 6. 10.	2018. 10. 5.

- ① 3,000원

② 3,700원

③ 4,400원

④ 5,500원

⑤ 7,200원

대출 종료일 (연장x)	연체료 (연장x)	연체료 (연장o)
16	1,400	1,400
26	400x2	800
18	1,200	1,200
23	700x2	0
18	1,200x2	500x2

Σ = 4,400

문 1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철수가 구매한 과일 바구니를 확실히 맞힐 수 있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2019행상가-13

- 철수는 아래 과일바구니(A ~ E) 중 하나를 구매하였다.
- 甲, 乙, 丙, 丁은 각자 철수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여 대답을 듣고 철수가 구매한 과일바구니를 맞히려 한다.
- 모든 사람은 <과일바구니 종류>와 <과일의 무게 및 색깔>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철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과일바구니 종류>

종류	바구니 색깔	바구니 구성
A	빨강	사과 1개, 참외 2개, <u>메론</u> 1개
B	노랑	사과 1개, 참외 1개, <u>귤</u> 2개, <u>오렌지</u> 1개
C	초록	사과 2개, 참외 2개, <u>귤</u> 1개
D	주황	참외 1개, <u>귤</u> 2개
E	보라	사과 1개, 참외 1개, <u>귤</u> 1개, <u>오렌지</u> 1개

<과일의 무게 및 색깔>

구분	사과	참외	메론	귤	오렌지
무게	200 g	300 g	1,000 g	100 g	150 g
색깔	빨강	노랑	초록	주황	주황

*스피드해법
1. O/X로 답변 가능하지 않은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이/저로 답변 가능한 질문을 2개 이상일 경우 최대 4개까지만 선택 ∴ 丁 탈락 (②, ④, ⑤ 제거)
2. 서지 구상 甲 또는 丙만 확인
3. A vs E, B vs C 중심으로 판단

	빨강	노랑	초록	주황	보라
4	O	X	O	X	X
5	X	O	X	X	X
5	O	X	X	X	X
3	X	X	O	X	X
4	X	X	X	X	O

<보 기>
甲: 바구니에 들어 있는 과일이 모두 몇 개니? 바구니에 들어 있는 과일의 무게를 모두 합치면 1kg 이상이니?
乙: 바구니의 색깔과 같은 색깔의 과일이 포함되어 있니? 바구니에 들어 있는 과일이 모두 몇 개니?
丙: 바구니에 들어 있는 과일이 모두 몇 개니? 바구니에 들어 있는 과일의 종류가 모두 다르니?
丁: 바구니에 들어 있는 과일의 종류가 모두 다르니? 바구니에 들어 있는 과일의 무게를 모두 합치면 1kg 이상이니?

- ① 甲, 乙
- ② 甲, 丁
- ③ 乙, 丙
- ④ 甲, 乙, 丁
- ⑤ 乙, 丙, 丁